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호남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장석주·경영학과 교수)는 전기·전자·정보통신의 특화분야로 중소기업청과 연대를 구축해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창업공간과 사무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 산업형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서버실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에게 인터넷 전용선을 지원, 최적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크게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정부 지원하에 1999년 설립해 문을 열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부합하는 인터넷,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기술·경영지도, 장비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공창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센터는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확보와 판로 및 마케팅

팅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개소 이래 정부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에 9개업체,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에 1개업체,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사업 1개업체 등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다"면서 "앞으로도 향후 더 많은 입주기업이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49개 업체가 졸업했으며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약 33억원이며, 25%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육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59명으로 고용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육실적은 2007년도 특허등록 3건, 출원 16건으로 센터의 벤처기업 육성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육성과와 함께 중소기업청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보육센터(A등급)로 선정됐다.

센터의 입주기업중에는 광각 영상시스템을 개발해 양산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나노포토닉스(대표 권경일)와 현장 정보관리기기 및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장석주 센터장 인터뷰

제조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알엠텍(대표 정대의)과 기록물DB구축의 지방선두 업체인 한국아이티(대표 윤우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나노포토닉스는 '2004 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Frost & Sullivan사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술상 (Frost & Sullivan Industrial Technology Award, Excellence in Technology of the Year (Wide-angle lens technology :Asia Pacific))을 수상하는 등 개발 제품의 뛰어난 기술성과 사업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노포토닉스에서 시판중인 '반사굴절식 직선수차보정 광각 렌즈'는 화각이 151도이면서 왜곡이 1% 이하인 세계에서 유일 무이한 제품이다. 또한 올해는 '지식경제부'에서 후원하는 '지방기술 혁신사업'의 성과물로서 화각 190도의 메가픽셀급 어안 렌즈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로를 개척중이다.

나노포토닉스는 또 자체 개발된 어안 렌즈를 사용하는 파노라마 카메라를 곧 출시할 예정이며, 어안 렌즈로 포착한 영상에서 파노라마 영상을 추출하는 영상 처리 기술은 나노포토닉스가 가장 자랑하는 핵심 기술이다. 기존의 기술은 결상 작용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파노라마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하여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부정확한데 반해 나노포토닉스가 개발한 기술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보안 카메라나 자동차용 전·후방 카메라, 로봇용 시각 센서, 스포츠 중계와 같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알엠텍은 중소제조업에서 운영중인 공장을 관리하는것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개선하는 등 해결중심의 실질적인 공장관리 개선 시스템을 제공하는 POP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과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에 선정되어 성공리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 6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에는 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아이티는 자료관 DB구축 전문 시스템 통합사업자로 자료관 DB구축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공서 및 지자체의 기록물 DB구축사업, 제적부 전산화등에 참여해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석주 센터장은 한국벤처창업학회 차기회장과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 수석부회장과 광주전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벤처창업통'으로 평평이 나 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서 의뢰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원으로서 국내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스탠포드대학, I Park,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와 런던개발기구(LDA), 독일의 SPICE Group 등의 지역혁신체계와 테크노파크, 사이언스 파크, 이노베이션센터등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외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벤처마킹한 사례를 국내 창업보육사업에 접목시켜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서 중소기업청장상(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석주 센터장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질 좋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창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되고 인근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창업진흥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APID**